

‘다시 일상으로’ 갈 수 있을까

요즘처럼 소소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을까?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삶의 순간들이 그리워지는 해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극장에서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보고, 저녁에 치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EBS는 그 희망을 다투어 찾아가다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개최한다.

EBS국제다큐영화제(EIDF)가 오는 17일 개막해 23일까지 일주일간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 17회를 맞은 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상영, 세계문화와의 소통의 장을 열고 다큐멘터리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일상으로-다큐, 내일을 꿈꾸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0개국 69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지난해보다 영화제 개최 기간과 상영 편수는 줄었지만, 다큐멘터리 산업과 제작 활성화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인더스트리 마켓’이 생겼고 경쟁부문 관객심사단이 구성됐다.

상영작은 지상파 EBS 1TV와 다큐멘터리 전용 비디오(VOD) 서비스 ‘다박스(D-BOX)’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올해는 극장 상영은 하지 않는다.

전체 프로그램 섹션은 총 12개로,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 ‘월드 쇼케이스’, ‘예술하다’, ‘다큐 속 무형유산’ 등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유지된다. 특별섹션으로는 각각 교육, 여성, 영화계 거장을 주제로 한 ‘내일의 교육’, ‘여, 성(齡)’, ‘마스터스’ 등이 있다.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 분야에서는 ‘학살의 기억들’, ‘호랑이와 소’, ‘폴란드로 간 아이들’, ‘월평’ 등을 만날 수 있으며 특별섹션에서는 ‘고르바초프를 만나다’, ‘시간의 편린들’ 등을 비롯해 ‘우먼 인 할리우드’, ‘그녀들의 무임승차’, ‘유자왕, 피아니스트의 시선’, ‘무대 뒤의 오로라’, ‘회귀의 서곡’ 등을 방영한다.

12개 섹션 중 최신 다큐멘터리 경향을 보여주는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는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과 아시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글로벌 부문에선 오민욱 감독의 ‘해협’을 포함한 7편이, 아시아 부문에선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며’ 등 5편이 상영된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E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17일 밤 9시50분 방송되는 개막식은 배우 차인표가 MC를 맡고 70분간 프로그램 및 각 섹션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송되는 개막작은 다운중후군을 가진 모델 매들린의 이야기를 담은 ‘매들린, 런웨이의 다운중후군 소녀’다. EIDF가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건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작품은 다운중후군을 가진 세계 최초의 슈퍼모델 타이틀에 도전하는 매들린 슈투어트의 여정을 담은 작품으로 뉴욕 패션위크 런웨이에 선 경력이 있고 페이스북에서 70만명 팔로워를 가진 매들린의 길을 따라가며 정체성, 아름다움,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바뀐 일상과 우리가 마주한 변화 등을 담은 EIDF-고양 ‘코로나 시대의 일상’ 초단편 공모전에서는 ‘연극이 끝난 뒤’, ‘코로나 면접기’, ‘잊혀진 일상을 찾아서’, ‘파리엔느 아름씨’ 등 8편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스케줄은 EIDF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BS국제다큐영화제 17~23일
30개국 69편 상영

평범함이 그리워지는
코로나 시대
세계문화와 소통하며
희망을 찾아보자

개막작 ‘매들린, 런웨이의 다운중후군 소녀(왼쪽)와 ‘파리엔느 아름씨’.



코로나가 바꾼 ‘또 다른 일상’

광주시립미술관 ‘...그림으로 기억하기’전
20여명 참여... 19일까지 전일빌딩245



김왕주 작 ‘코로나 레드 희망 찾기’

한 연령대의 전업 작가로 강일호 강일호·김선희·김영희·김왕주·김자아·노은영·류현자·박수만·성혜림·송영학·이호국·임남진·임용현·장용림·정상선·진경우·허인석 등 모두 20명이 참여해 서양화·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발레단 강민지·심수정 국제콩쿠르 수상

최근 광주시립발레단 단원들이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광주시립발레단은 13일 강민지 상임단원과 심수정 비상임단원이 각각 2020서울 국제콩쿠르 3위, 탄츄올림피아 아시아 대회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 씨가 출전한 서울국제콩쿠르는 국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용 대회다.

강 씨는 “발레단에 입단한 후 공연위주의 활동을 해오다가, 최태지 감독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콩쿠르에 도전하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광주시립발레단을 대표해서 나갔다는 책임감으로 무개감도 컸지만 힘과 동력도 더 크게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씨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18년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심수정 비상임단원은 탄츄올림피아 아시아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 베를린 본선 대회



강민지

심수정

진출권을 따냈다. 탄츄올림피아 아시아 대회는 세계인의 무용올림픽으로 입지를 다진 탄츄올림피아베를린의 아시아 예선대회로 매년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10개국의 우수 무용단체 및 학교들이 참가한다.

올해 시립발레단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한 심 씨는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하여 프 로로서 첫 대회였다”며 “광주시립발레단원의 이름으로 참여한 이번 대회를 통해 단원으로서 소속감을 누구보다 빨리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여성 어르신 Ship’ 재생 인문학 강좌

광주시민인문학 17일~11월 11일 카페 노블

공동체 관점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모티브로 한 ‘어르신 ship’ 인문학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민인문학이 주관하는 2020민주 시민대학 ‘공동체를 점검하다-여성 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가 오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월요 16강-수요 3강, 오후 7시30분)에서 진행된다. ‘여성 어르신 Ship’의 재생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강좌는 문학, 역사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강의는 모두 5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세션1(17일-9월 14일)은 명혜영 전남대 강의교수가 ‘문학으로 풀어보는 여성노인의 삶과 성(性)’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여성, 그리고 여성 노인-제로에서 출발하는 페미니즘’, ‘노년의 광가-박원사의 소모’ 등 다양한 내용이 펼쳐진다.

세션2(9월14일-10월 5일)는 세대 소통에 따른 심리 방어기제를 다룬다. 안정선 심리상담소장이 ‘세대 소통에 따른 심리 방어기제’를 주제로 ‘부인(否認), 외면하는 나’, ‘자기 합리화에 빠진 노인’ 등의 강의와 토론을 이어간다.

세션3(10월 12일-11월 2일)은 ‘유교문화와 여성 어르신’을 주제로 소설가인 이진 슬내음문학연구소 소장이 가부장제의



이진 소설가

노양진 교수

명암 등 유교 문화 속에서의 여성을 조명한다.

세션4(11월 9일-11월 30일)는 김봉국 전남대 강의교수가 ‘한국 현대사속 공동체를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민중, 아래로부터의 사상당 공동체’ 등 민중을 매개로 공동체의 양상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세션5는 공동체 수요특강으로 진행된다. 9월 16일에는 노양진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다원주의와 공동체’를 주제로 강연하며 10월 14일에는 위상복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솔리다리티의 연대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예술관광’ 토론 18일 양림동 ‘10년후 그라운드’

광주시가 추진중인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진흥 기본 계획’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대학교와 주스컴퍼니가 주관하는 예술관광 오픈 액션 테이블이 오는 18일 오후 4시 광주 남구 양림동 문화공간 ‘10년 후 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활동가, 실무자가 광주의 예술 관광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는 자리다. ‘예술관광도시 광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진 발제가 진행되며 주요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와 장현우 담당 담담예술창고 관장의 전문가가 발제가 이어진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펼쳐진다. 문의 070-4673-50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